

코스피 '오천피' 카운트다운…현대차 시총 3위로



12거래일 상승 4900선 첫 돌파

현대차 16% ↑…15만전자 터치

외국인 5400억 순매수 상승세

코스피가 19일 12거래일 연속 상승에 힘입어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했다. 현대자동차는 신고가 랠리 속에 16% 이상 급등하며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3.92p(1.32%) 오른 4904.66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오천피'까지는 불과 100p도 남지 않게 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1.34p(0.23%) 내린 4829.40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등락을 이어갔다.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뒤부터는 오름폭을 확대하고

917.37까지 오르는 등 정중 기준 역대 최고치도 경신했다. 또 12거래일 연속 상승해 지난 2019년 9월 4~24일(13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연속 상승일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473억원 순매수하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7507억원, 243억원 순매도 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23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측근인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에서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며 매도세를 자극했다.

이 가운데 주말 사이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였다.

코스피도 장 초반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장중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세계 최대 기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를 계기로 로보틱스 기대감이 커진 현대차 그룹주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현대차는 전장보다 16.22% 급등한 48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98조 2837억원으로 100주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시가총액 순위는 1위 삼성전자와 2위 SK

하이닉스에 이어 3위를 달성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6일 5위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두 계단 뛴 것이다.

아틀라스의 성공적 데뷔를 통해 현대차는 인공지능(AI)을 보유하거나 자동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한 '피지컬 AI' 선두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현대차는 CES 후 주가가 상승세를 달리면서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40만원 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종가 대비 지난 16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39.3%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14.9%)의 2.6배에 달한다.

삼성전자도 장중 15만원선을 터치하고 SK하이닉스(1.06%)도 올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로보틱스 기대감에 현대차와 더불어 기아(12.18%), 현대모비스(6.15%) 등도 줄줄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960선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장보다 13.77p(1.44%) 오른 968.36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종가 기준 지난 2022년 1월 14일(971.39)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다문화 청소년에 금융 교육·진로체험 기회

광주은행 '多多 체험캠프' 정읍 JB아우름캠퍼스서 진행
e-스포츠산업 이해·골든벨·스포츠단 재능기부 등 호응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호남지역 다문화 가정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정읍 JB아우름캠퍼스에서 3박 4일간 '다다캠프(다채롭고 다양한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

및 배드민턴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폭넓은 친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융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을 도왔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AI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참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SKT T1이 참여한 e-스포츠 산업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을 넘어 하

나의 산업으로 성장한 e-스포츠 분야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

미노 체험 활동을 통해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은행 스포츠단 '텐텐양궁단'과 '비즈로 배드민턴단' 선수들은 기본 자세와 기초 기술을 전수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직업군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상재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캠프가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광주은행 임직원이 직접 진행한 금융교육 및 금융 골든벨, AI체험 프로그램, e-스포츠 산업 이해 프로그램, 도미노 협동 체험, '취미가 직업이 된 이야기' 특강, 양궁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보험료 오르고 연금 더 받는다…국민연금 새 제도 집중 홍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원·감액제도 개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제도를 1월 중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5%에서 0.5% 상향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자는 월 9만 원에서 9만5000원으로 납부 금액이 늘어난다. 매년 0.5%씩 2033년에 13%까지 조정된다.

납부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실업 등으로 보험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는 소득대체율이 기준 40%에서 43%로 높아진다. 월 소득 300만원으로 40년을 납부한 기업자는 129만원을 이는 기준 제도 대비 월 9만원 증가한 액수다.

출산·군복무에 따른 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하고, 기준 50개월로 제한된 상한을 폐지한다. 디자녀가 구는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복무 기간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도 기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두 배 늘어난다. 2026년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으면 경우 바뀐 제도의 혜택이 적용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감액 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 받게 된

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기업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월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로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당 생애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놓어민이나 저소득 사업장과 입주에 대한 보험료지원도 있다.

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줄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소득이 519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이 월 500만원인 경우 매월 14만원이 감액됐지만 제도개선으로 500만원 소득자

는 감액 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 받게 된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은행,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1조 지원

신규자금 5000억 편성…최대 연 1.1%p 금리 우대



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1%p 금리우대를 적용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우성이 예산전략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 상황과 지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낮춘다"

한은 설문…주택구입·전세자금 등 대출수요 증가 전망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13. 3분기~28. 4분기~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부호는 대출태도 원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반대를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

의 3~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한은, 중기 특별자금 대출 신규취급 연장

7월까지 6~10등급·무등급·SOHO 대상 10억원 한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자금 지원의 신규대출 취급 기한을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고 19일 밝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 중소 기업·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어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연장을 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 연장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